

여수~고흥 연결 '일레븐 브릿지' 순항



여수~고흥간 아름다운 섬들을 11개 다리로 연결하는 '일레븐 브릿지' 사업이 순항 중이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여수 화태-백야를 잇는 4개 연도교 사업이 내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화태에서 월호·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4개 연도교 건설을 위한 설계비 20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 예결위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총 사업비는 5277억원으로 오는 2020년 단기방식(일괄수주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화태-백야 간 연도교가 모두 완공되면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 돌산읍까지 기존 육로로 2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35분으로 1시간 이상 단축된다.

여수 한려해상공원과 고흥 우주센터 간 최단거리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아름다운 여수 고흥의 해안-섬 관광지 활성화도 기대된다.



화태-백야 4개 연도교 설계비 200억 정부예산 반영 내년 본격 착공 7개는 개통·공사 중...섬 관광 활성화 등 신성장 해양관광벨트 구축

이번 설계 예산확보로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섬-바다 등 천연 해양자원을 보유한 여수와 남해안 관광명소를 잇는 새로운 신 성장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태-월호·개도·제도·백야 등 4개의 연도교를 건설해 여수시 남면 화태도와 화정면 백야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03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반영됐지만, 지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여수지역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다.

우선 여수에서는 연도교가 완공되면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돌산지역은 섬

특성상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 나오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등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교통체증이 빈번했다.

여수시는 연도교 건설로 돌산읍과 화정면 간 국도 77호선이 이어질 경우 교통량이 분산돼 돌산지역은 물론 여수 동부권 교통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은 고흥에서 여수, 경남 남해, 통영, 거제를 잇는 신 성장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육지와의 섬,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 해양관광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3년 국도건설 사업에 반영된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연도교 중 8539억원을 들여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가

추진 중인 7개 연륙·연도교의 가치와 투자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된다.

올해 말 여수 화양에서 고흥까지 4개 연도교 추가 개통하면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곳 중 돌산-화태(4km), 백야-화양(2.6km), 적금-영남(2.98km)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안포-장수(7.3km), 화양-조발(2.05km), 조발-남도(3.90km), 남도-적금(3.64km) 등 화양에서 고흥 구간 4개 연도교는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여수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이번 예산확보 성과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아름다운 섬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효과 등이 더해져 섬 주민 생활면의 향상, 지역 균형발전 및 국내경제 활성화,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기반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019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 오늘 개최

'2019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27일 오후 1시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직업 체험관, 취업 지원관 등 6개관 64개 부스가 차려진다.

이 자리에서 용호기계기술, 승진엔지니어링 등 57개 구인기업이 현장채용과 간접채용을 통해 33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업 채용관에서는 구직·구인 상담과 채용이 이뤄지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 후 채용관에 가면 즉석 면접을 볼 수 있다.

취업과 창업 컨설팅관도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여수산단 LG화학 인사 실무자에게 취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소상

공인사정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부터 창업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방송인 김학도씨가 진행하는 창작 아카데미 특강도 준비돼 있다.

김 씨는 "청년의 도전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취업 자료도 얻을 수 있으며 미래로봇체험,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이미지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취업희망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행사·축제 교통정리에 공무원 동원 말라'

여수시 '브라운 백 미팅'서 휴식·업무공백 대책 마련 지적

"행사·축제 교통정리에 공무원 동원 말라."

관광객이 집중되는 축제 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해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정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축제 시 효율적인 교통 대책 지원 방안을 주제로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진행한 결과 '행사·축제 개최 시 공무원 동원보다 교통 전문 용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브라운 백 미팅은 권오봉 여수시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24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견해를 밝힌 이번 모임은 올해 9번째 행사였다.

브라운 백미팅 참석자들은 행사·축제 시 일반 공무원들이 교통 지원 근무를 나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시

민 불만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업체 운영,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확대 운영, 교통봉사단체 적극 활용,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전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태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담당 부서와 일반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까지 챙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해마다 5월 거북선대축제와 9월-10월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등 축제 때마다 밤늦은 시간까지 교통정리에 동원돼 왔다. 축제가 없는 시기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도 오동도 인근과 돌산대교 인근에서 교통정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로를 호소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기초지자체 지역호감도 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여수시가 (주)문화마케팅연구소가 주관한 전국 기초지자체 지역호감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사진)

여수시는 최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5회 트래블라이 어워즈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트래블라이 어워즈는 관광정보 플랫폼인 트래블라이와 관광정보 신문인 트래블투데이에선 후원하는 민간부문 대표 관광 시상식이다.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인터넷 포털 검색 기록과 기관별 관광 홍보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6-8월 관광성수기에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올해 여자인 갯벌노을체험, 동



동북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낭만버스킹, 이순신스토리텔링 낚살투어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이 상

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는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GS건설, 울촌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재추진

해수부 유권해석 따라

여수시에 신청 방침

GS건설이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시 울촌면 도성마을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재개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GS건설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으나, GS건설은 최근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여수시에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이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해수부는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역에 포함될 수증보가 해양 공간 관리계획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GS건설은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성마을 앞바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수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해양공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만큼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수시·주민과 협의해 도성마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으로 40만㎡ 면적에 680억원을 들여 34MW의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단계는 1200억원을 투입해 70만㎡ 면적에 60MW급 발전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GS건설은 도성마을 복지 사업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산자부 등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는 올해 9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여수시는 GS건설이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토지 11필지 가운데 2필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암마을 해변의 어선 피해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GS건설은 여수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0월 이의 신청을 했다.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달 초 이를 기각했지만, 해수부의 관련 규정 유권해석으로 사업추진이 반전을 맞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재접수하는 것이 사업 진행이 더 빠를 것"이라며 "사회 공헌 사업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도성마을은 한센인 70명 등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 때 양계와 양돈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불렸으나 축산 농가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20여 농가만 남았고 석면 축사가 방치되면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MUDEUNG PARK HOTEL & RESORT

예약문의 062-226-0011